

#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레스 영웅숭배\*

오 홍 식 \*\*

- I. 머리말
- II. 스파르타 왕가의 시조, 헤라클레스
- III. 아테네의 독재자 피시스트라토스와 헤라클레스
- IV. 마케도니아 왕조의 헤라클레스 숭배
- V. 맺음말

## I. 머리말

그리스에서 헤라클레스 영웅숭배는 상당히 보편적 현상이었다고 주장되어 왔다. 스파르타에서 그는 국조(國祖)로서 숭배되었다. 아테네에서는 기원전 6세기 독재자 피시스트라토스의 수호신이었다고 주장되기도 하며, 마케도니아에서도 국조로서 숭배되었다고 주장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세 경우에 영웅 헤라클레스의 숭배가 정치적으로 국조 숭배나 수호신 숭배의 역할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숭배에는 역사적 근거가 있는지를 구명(究明)하는 데 있다.

---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해외지역연구)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KRF-2007-323-A00008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강사

## II. 스파르타 왕가의 시조, 헤라클레스

### 1. 두 명의 헤라클레스

헤로도토스는 미케네문명이 끝나고 소위 암흑시기를 시작하게 만드는 도리스족의 침입 때, 도리스족의 지도자는 이집트인들이었다고 다음과 기록한다.

헬라스인들은 도리스족 왕들의 조상들을 다나에의 아들 페르세우스—그러나 제우스 신은 그의 아버지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에 이르기까지의 인물들로 올바르게 잡고 있고 그들을 헬라스인들로 보고 있다. 사실 페르세우스 때부터는 이들은 헬라스인들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페르세우스까지’만 계보를 따져 올라간 것은, 헤라클레스의 아버지로 암피트리온이라는 이름을 지닌 인간이 언급되지만, 페르세우스의 아버지로 인간이 거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르세우스까지’는 엄정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나는 올바르게 따진 것이다. 그런데 아크리시오스의 딸 다나에로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도리스인의 지도자들은 순수한 이집트인들이<sup>1)</sup> 밝혀질 것이다. (헤로도토스, vi.53.2)<sup>2)</sup>

도리스족의 지도자들은 헤라클레스의 고손자들인데, 그렇다면 헤로도토스는 헤라클레스가 이집트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를 제우스가 아니라 ‘암피트리온이라는 이름을 지닌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상기 vi권에서 나타난 그의 이러한 확신은 근거를 갖고 있다. 그는 ii권에서 이집트 사제로부터 헤라클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는 과

1) 정확히 말하면, ‘순수한 이집트인들’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온 자들’로 히소스와 관련된 자들이다. 오홍식, 「스파르타 왕가의 히소스적 기원」, 『서양고대사연구』 16집 (2005.6)을 참조하시오.

2) 이 인용문의 번역은 헤로도토스 원전을 근거로 삼고 천병희 선생의 번역을 참조하였다. 헤로도토스 지음 / 천병희 옮김, 『역사』 (도서출판 숲, 2009).

이 직접 인용문에서 만이 아니라 그밖의 모든 직접 인용문에서 사용된 굵은 글자는 필자가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정에서 그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다.

헤라클레스에 관해, 나는 그가 12신의 하나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이집트 어느 곳에서도 나는 헬라스인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헤라클레스에 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 참으로 나에게, 헤라클레스라는 이름(τὸ οὖνομα τοῦ Ἡρακλέους)이 헬라스로부터 이집트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집트로부터 헬라스에, 각별하게는 그 이름을 암피트리온의 아들에게 주었던 헬라스인들에게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헤라클레스의 부모인 암피트리온과 알크메네가 모두 혈통상 이집트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가 있다. (헤로도토스, ii.43.1-2)

바로 이어서, 그는 헤라클레스에 관해 들은 상기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페니키아의 티로스와 에게 해의 타소스 섬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 뱃길로 페니키아의 티로스에 간 일이 있는데, 거기에 헤라클레스 신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제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신전은 티로스의 도시 창설과 함께 세워진 것으로, 2300년 전이라고 한다. 나는 티로스에서 소위 ‘타소스의 헤라클레스’라는 또 다른 신전도 보았다. 그 후 나는 타소스 섬에도 갔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건립된 헤라클레스 신전을 보았다. 이 페니키아인들이 에우로파를 찾으러 배를 타고 항해할 때에 (일부가) 그곳에 정착했다. 그때는 그리스에서 암피트리온의 아들 헤라클레스가 태어나기 5세대 전쯤이었다. (헤로도토스, ii.44.4)<sup>3)</sup>

헤라클레스에 관해 이집트 사제들에게 듣고, 그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페니키아로 간다. 그런데 그리스의 헤라클레스 숭배가 이집트로부터 전해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왜 그는 페니키아로 간 것일까? 그 밑바닥에는 페니키아의 헤라클레스 숭배 또한 이집트로부터 전래되었다는 믿음이 깔려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3) 티로스의 헤라클레스 신전에 관해, 파우사니아스 ix.27.8도 참조하시오.

그러나 헤라클레스는 이집트에서 매우 오래된 신이다. 이집트인들 스스로가 말하듯이, 8신(神)이 12신—그 신들 중의 하나를 이집트인들은 헤라클레스로 받아들인다—으로 바뀔 때는 파라오 아마시스의 치세보다 1만 7천 년 전이었다. (헤로도토스, ii.43.3)

티로스의 헤라클레스 신전이 2300년 전에 세워졌다면, 이집트의 헤라클레스는 그보다 훨씬 오래된 신이라는 그의 기술로 보아 그러하다. 신으로서의 헤라클레스의 원고장은 이집트이며, 그것이 페니키아에 전래되고, 또 페니키아에서 그리스로 전래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리스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헤라클레스의 모습에는 이집트의 헤라클레스의 모습과 페니키아의 헤라클레스—이집트에서 도래된 신이기는 하지만—의 모습이 섞여 있을 것이다.

다시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살펴보자.

그러므로 이제 필자가 탐구로(τὰ μὲν νυν ἱστορημένα) 알아낸 것은 명백히 헤라클레스는 고대의 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더욱이,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이 헬라스인들은 헤라클레스에 대한 두 종류의 숭배를 확립하고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옳았다. 그들은 불사의 신인 헤라클레스에게 제사를 바치며 그를 올림포스 신으로 불렀으나, 한 사람의 죽어야 할 영웅인 또 다른 헤라클레스에게도 봉헌물을 바쳤다(καὶ τῷ μὲν ὡς ἀθανάτῳ Ὀλυμπίῳ δὲ ἐπωνυμίην θύουσι, τῷ δὲ ἐτέρῳ ὡς ἥρωι ἐναγίζουσι). (헤로도토스, ii.44.5)

헤로도토스는 “한 사람의 죽어야 할 영웅인 또 다른 헤라클레스”는 신이 아니라고 기술한다. 그 영웅은 카드모스 또는 에우로파로부터 5세대 후의 사람일 따름이며,<sup>4)</sup> 그것도 부모 모두 이집트인들인 암피트리온과 알크메네

4) 암피트리온의 아들 헤라클레스가 오이디푸스의 처남 크레온의 딸 메가라와 결혼했는데, 오이디푸스는 카드모스의 4대손이니 헤라클레스가 ‘5세대 후의 사람’이라는 헤로도토스의 기술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



두 사람(=디오니소스와 판)에 관해서, 사람들은 믿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든지 믿으려 하지만, 여기에서 두 사람에 관한 나의 견해를 밝히겠다. 암피트리온의 아들 헤라클레스의 경우처럼 세멜레의 아들 디오니소스와 페넬로페의 아들 판이 헬라스에 나타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헬라스에 살았다면, 그들 또한 고대의 신들인 더 오래된 판과 디오니소스의 이름을 딴 인간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헤로도토스, ii.146.1)

헤로도토스가 이 인용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의 헤라클레스, 디오니소스, 판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스 땅에 태어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살았던 사람들이며, 그러므로 이들은 실제로는 신이 아니라 신의 이름을 딴 인간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헤로도토스는 헤라클레스를 언제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알크메네의 아들 헤라클레스는 900년쯤 전 사람이고, 페넬로페의 아들 판-헬라스인들에 따르면, 페넬로페와 헤르메스가 판의 부모였다-은 800년쯤 전 사람이어서 트로이 전쟁 이후의 사람이다. (헤로도토스, ii.145.4)

헤로도토스가 기원전 484-425년 경에 생존하였고, 『역사』를 기원전 5세기 중반에 서술하였으니, 그는 헤라클레스를 기원전 14세기 중반쯤의 사람으로 보고 있다. 디오도로스의 기록도 보자.

헤라클레스가 올림포스 신들의 편에서 거인족들과 싸웠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 그들이집트 사제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기 한 세대 전 사람인 헤라클레스가 살았을 때(‘Ηρακλέα γεγενῆσθαι, γεγενῆ πρότερον τῶν Τρωικῶν) 거인족이 태어났다는 헬라스인들의 말은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디오도로스, i.24.2)

파로스 연대기에 따르면 트로이 전쟁이 1218/7년에 발생했다. 디오도로스

에 따르면 헤라클레스는 트로이 전쟁이 발발하기 한 세대 전 사람이니 1250년경에도 활약했던 셈이다.

헤로도토스와 디오도로스의 기록에서 누가 좀 더 정확하게 헤라클레스의 연대를 기록한 것일까? 파우사니아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암피아라우스의 아버지 오이클레스의 무덤으로 여겨진다. 참으로 오이클레스가 헤라클레스와 힘을 합해 라오메돈을 치러 원정을 떠난 후가 아니라, 아르카디아에서 최후를 맞았다면 말이다. (파우사니아스, viii.36.6)

라오메돈은 바로 아가멤논이 일으킨 트로이 전쟁이 벌어졌던 때의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아버지이다. 헤라클레스가 라오메돈을 쳤을 때는 프리아모스는 왕자였다. 아폴로도로스는 이 사건을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헤라클레스는 텔라몬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리하여 헤라클레스는 라오메돈과 그의 자식들—포다르케스(Podarcus)는 제외하고—을 쏘아 죽이고 트로이를 점령한 후, 그는 라오메돈의 딸 헤시오네를 텔라몬에게 주었으며, 그녀에게는 포로들 중 그녀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그녀가 오빠인 포다르케스를 택하자, 헤라클레스는 우선 그는 노예가 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그녀가 그의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그가 매물(賣物)로 나오게 되자, 그녀는 머리의 베일을 떼어 몸값으로 주었다 한다. 이런 연유로 포다르케스는 프리아모스(Πριάμος)라고<sup>6)</sup> 불리게 되었다. (아폴로도로스, ii.6.4)

이 프리아모스가 부왕 라오메돈이 전사한 후 트로이 왕위를 이었고,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 트로이 전쟁이 터지게 된다. 프리아모스가 젊었을 때, 헤라클레스가 트로이를 공격했으니, 헤로도토스가 말하는 1350년경보다는 디오도로스가 말하는 1250년경이 더 옳을 것 같다.

미케네 그리스사에 관한 구체적인 연대를 기록하고 있는 파로스 연대기

6) 프리아모스(Πριάμος)라는 이름은 πρίαμαι '사다, 구입하다'로부터 나온 것이라 한다. 즉, '구입된 남자'라는 뜻이다. Perseus Project를 참조하시오.

(MARMOR PARIUM)도 18번째 사건에서 헤라클레스를 언급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 ]년 전, 아테네에서 아이게우스가 왕이었을 때, 헤라클레스는...

애석하게도 연도를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을 읽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19번째 사건 기록을 보자.

지금으로부터 1031년 전, 아이게우스가 아테네의 왕이었을 때, 아테네에는 식량이 부족하였고 신의 조언을 구하는 아테네인들에게 아폴론은 미노스가 내놓은 조건이 아무리 불리하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하셨다.

파로스 연대기가 기원전 264/3년에 제작되었으니, “지금으로부터 1031년 전”이라면 기원전 1295/4년이다. 17번째 사건도 연도를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을 읽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18번째 사건은 기원전 1295/4년 이전이다. 종합하자면, 헤라클레스는 기원전 1300년경부터 기원전 13세기 중반까지 활약했던 인물로 보인다.

그런데 아폴로도로스의 기록에 흥미로운 구절이 있다.

미니아이족과 치른 이 전투가 끝난 뒤 헤라클레스는 헤라의 질투로 미쳐 메가라가 낳아준 자기 자식들을 이피클레스의 두 아이와 함께 불 속에 던졌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추방형을 선고하고는 테스피오스에게 죄를 정화받은 뒤 델포이로 가서 자신이 어디에 정착해야 하는지 신에게 물었다. 이 때 무녀(巫女) 피티아가 처음으로 그를 헤라클레스라고 불렀다(ἡ δὲ Πυθία τότε πρῶτον Ἡρακλέα αὐτὸν προσηγόρευσε). 그는 그때까지는 알키데스(πρῶτον Ἀλκείδης)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티린스에 가서 살며 에우리스테우스한테 12년 동안 봉사하되 에우리스테우스가 부과하는 열 가지 고역(苦役)을 완수하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그 고역을 마치고 나면 그는 불멸의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녀는 예언했다. (아폴로도로스, ii.4.12)<sup>7)</sup>

7) 이 논문에서 인용된 아폴로도로스의 상당 부분은 천병희 선생의 번역-아폴로도로스



그는 헤라클레스의 원래 이름은 알키데스라고 기록하고 있다. 타당성이 있다. 핀다로스를 인용해보자.

그리고 알카이오스 가문의 신성한 귀공자

헤라클레스(Ἡρακλῆς, σεμονὸν θάλας Ἀλκαῖδαν)가 와서  
그의 아버지를 위한 축제—인간들과 거창한 경기로 복적거리는—를 확립하였을 때,  
그는 그에게 제우스의 가장 높은 제단 위에 신탁소를 확립하라고 명했다. (핀다로스,  
『올림픽 송시』 vi.68)

그 시인도 헤라클레스를 알카이오스 가문의 신성한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알키데스라는 이름은 그의 친할아버지 알카이오스로부터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상기의 족보표를 보시오). 디오도로스도 이집트 사제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은 헤라클레스의 원래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알크메네의 아들은 (이집트의 헤라클레스보다) 1만 여년 후에 태어났고 탄생 시에 알카이오스라고 불렸는데, 후년에 헤라클레스로서 알려지게 되었다(τὸν δ' ἐξ Ἀλκμήνης γεγόμενον ὕστερον πελίοσιν ἔτεσιν ἢ μυρίοις, Ἀλκαῖον ἐκ γενετῆς καλούμενον, ὕστερον Ἡρακλέα μετονομασθῆναι). 그 이유는 마르티스가 이야기하듯이 그가 헤라의 도움으로 영광(Kleos)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옛 헤라클레스와 동일한 삶의 목표를 세우면서 그 명성과 이름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디오도로스, i.24.4)

암피트리온의 아들은 원래의 이름이 헤라클레스가 아니었다. 헤라클레스의 탄생시의 원래 이름을 아폴로도로스가 알키데스로, 디오도로스가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알카이오스라고 다소 다르게 표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암피트리온의 아들은 그 이름을 헤라클레스로 개명함으로써 옛 헤라클레스의 명성을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자음/ 천병희 옮김, 『원전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도서출판 숲, 2002) - 이다.

### 3. 헤라클레스가 제우스의 아들이 된 이유?

그런데, 암피트리온의 아들 헤라클레스가 왜 제우스의 아들이 된 것일까? 영웅 헤라클레스를 스파르타 왕가의 시조로서 또는 역사적 인물로서 다루려고 할 적에, 역사가들에게 장애가 되는 또다른 요소는 그가 제우스의 아들로도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설명해봄으로써 암피트리온의 아들 헤라클레스를 역사적 인물로서, 스파르타 왕가의 시조로서 이해해보려고 한다.

#### 1) ‘도리스족의 침입’ 이전의 도리스족과 제우스

그리스 민족의 시조 헬렌에 관한 ‘파로스 연대기’의 6번째 사건 기록을 보자.

지금으로부터 1257[년] 전(1521/0 BC), 아테네에서 암픽티온이 왕이었을 때, 데우칼[리온]의 아들 헬렌(Hellen)이 [프티]오티스의 왕이 되었고, 그리하여 예전에 그리스인들이라고 불렀던 자들이 헬레네스라고 불렀고(καὶ Ἕλληνες ὀνομάσθησαν τὸ πρότερον Γραικοὶ καλούμενοι), [판아테... 축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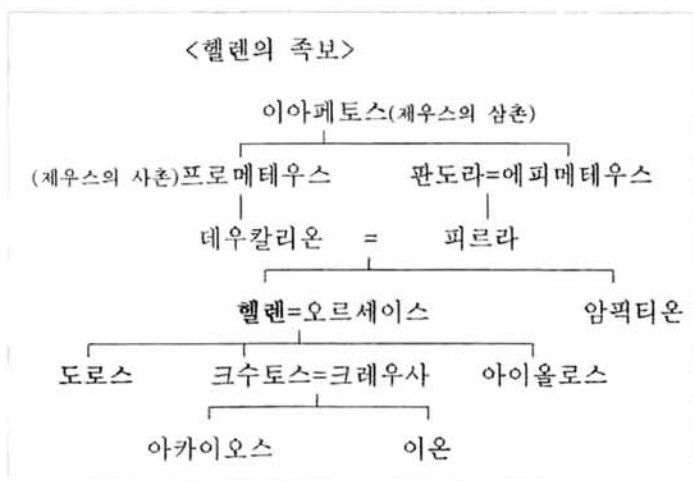
헬렌이 보이오티아 북부에 위치한 프티오티스(프티아)의 왕이 되고 백성을 ‘헬레네스’라고 칭했다는 것이다.

헬렌의 부모는 데우칼리온과 피르라인데, 어떤 그리스 저자들은 헬렌의 아버지를 제우스로 기술하기도 한다. 데우칼리온에 관해 ‘파로스 연대기’는 4번째 사건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265년 전(1529/8BC), 아테네에서는 크라나오스가 왕이었을 때, 데우칼리온의 치세에 홍수가 있었고, 데우칼리온은 물을 피해 리코레이아(Lycoria)로부터 아테네의 [크라나오스]에게로 갔고, 올[림포]스의 제우[스] 신전을 건[립하

고는](καὶ τοῦ Διὸς τοῦ 'Ο[λυμπίου τὸ ἱερὸν ἱδρύσασθαι), 구원된 것에 감사하며 제물을 바쳤다.

제우스는 바로 테우칼리온과 그의 아들 헬렌이 숭배하는 신이다.



헤로도토스는 도리스족의 침입 이전 도리스족(Δωριεῖς)이 있었던 장소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헬라스인들은 테우칼리온 왕 시절에 프티아 땅에 거주하였고, 그후 헬렌의 아들 도로스 시대에는 옷사 산과 올림포스 산 아래에 있는, 히스티아이아라고 불리는 땅에 거주하였다. 그런데 헬라스인들은 카드모스의 후손들(Καδμεῖοι)에 의해 히스티아이아로부터 축출된 후에는 마케도니아의 핀도스 산 부근에 정착하였다. 그곳으로부터 다시 드리오피아로 이주하였고, 마침내는 드리오피아로부터 펠로폰네소스로 이주한 후 그곳에서 도리스족이라는 이름을 취하였다. (헤로도토스, i.56.3)

드리오피아는 어디일까? 헤로도토스는 드리오피아는 지명 도리스(Δωρίς)의 옛 명칭이라며, 그 위치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8)</sup>

도리스 땅은 말리스와 포키스 사이에 30 스타디온의 폭으로 좁은 띠 모양으로 뻗어 있고, 옛날에는 드리오피아라고 불리웠다. 이 지역은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도리스인들의 발상지였다. (헤로도토스, viii.31.1)

미케네 그리스 시대에 카드모스의 후손들은 테베를 중심으로 보이오티아를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그들은 아레스, 아프로디테, 아테나를 숭배했던 것으로 보인다.<sup>9)</sup> 상기 인용문(i.56.3)에 따르면, 헬라스인들은 카드모스의 후손들의 공격을 받아 북쪽 핀도스 산 부근으로 쫓겨났다.

그런데 헬렌의 후손으로 보이오티아에서 처음으로 정치적 실세가 된 자가 페넬레오스이다. 보이오티아의 왕 테르산드로스가 트로이 원정에 참전했다가 전사한다. 테르산드로스의 아들 티사메노스가 나이가 어려 페넬레오스가 원정에 참전한 보이오티아인들의 지도자가 되었으나 원정에서 전사한다. 이는 적어도 트로이 원정 이전에 보이오티아에서 제우스는 숭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up>10)</sup>

그리고 다나오스가 그리스 땅에 도래하였을 때, 그는 자신에게 이집트로부터 도망치라고 충고해준 아테나 여신을 위해 아르골리스에 ‘사이스의 아테나’ 신전을 건립하였고, 다나오스의 딸들은 아테나 여신상과 아프로디테 여신상을 봉헌했다는 기록을 그리스 저자들은 남기고 있다.<sup>11)</sup>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다나오스와 그의 딸들이 제우스와 관련되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미케네 그리스 시대에 아르골리스에서 제우스가 숭배되지 않았음을 뜻할 수 있다.

8) 도리스족의 발상지에 관해, 스트라본 ix.4.10도 참조하시오.

9) 카드모스 왕의 부인 하르모니아의 부모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였고, 카드모스는 ‘웅가의 아테나’ 신상(神像)을 들여왔다.

10) 오홍식, 「카드모스 왕조와 스파르티」, 『서양고대사연구』 17(2005.12), p. 23을 보시오

11) 헤로도토스, ii.182.2; 아폴로도로스, ii.1.4; 스트라본, xiv.2.11; 파우사니아스, ii.37.2를 보시오



도리스족의 이동경로 헤로도토스(i.56.3)가 언급한, 침입 이전 도리스족의 거주지역들을 밑줄 그어놓았다. Cambridge Ancient History(1975), vol ii, part ii, p. 682.

## 2) 헤라클레스와 도리스족

그리스 저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헤라클레스는 이집트에서 그리스 땅에 도래한 다나오스의 8대손(代孫)이다. 파로스 연대기에 따르면, 다나오스는

기원전 1511/10년에 아르고스에 도래하였다.

‘머리말’에서 도리스족의 지도자들인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이 ‘순수한 이집트인들’이라고 기술한 헤로도토스(vi.53.2)의 기록을 인용하였었다. 그런데 몇 구절 뒤에서 그(vi.55.1)는 도리스인들의 지도자들이 이집트인이었음을 기정사실화 한다. “이 정도로 충분하겠다. 이집트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이 왜 그리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 도리스인들로부터 왕권을 얻었는지는 다른 자들에 의해 이야기되어 왔기 때문에, 필자는 그것은 언급하지 않고 다른 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것들을 언급할 것이다.” 그런데 스트라본(ix.4.10)과 아폴로도로스(ii.7.7)는 헤로도토스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라고 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도리스인들의 왕 아이기미오스가 권좌에서 쫓겨났으나 헤라클레스에 의해 복위되었고, 헤라클레스도 얼마 후 죽었기 때문에 은혜 갚을 틈이 없었지만, 미케네 왕 에우리스테우스로부터 박해를 받던 헤라클레스의 장남 힐로스를 입양하고 후계자로 삼아서 헤라클레스에 받은 은혜를 갚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헤라클레스의 자손들이 도리스족의 왕위를 잇다가 그의 4대 손들이 마침내 도리스족을 이끌고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침입했던 것이다.

아폴로도로스는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이 도리스족을 이끌고 펠로폰네소스로 침입한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들은 펠로폰네소스를 장악하자 자신들의 시조신인 제우스(πατὴρ Ζεύς)를 위해 제단 세 개를 세우고는 그 위에서 제물을 바치고 나서 제비를 던져 도시들을 나누었다. 첫 번째 뿔은 아르고스이고 두 번째 뿔은 라케다이몬이고 세 번째 뿔은 메세네였다… (아폴로도로스, ii.8.4)

제우스는 헬렌의 신이며, 헬렌의 아들 도로스의 신이며, 도로스의 백성인 도리스족의 신이다. 아폴로도로스(ii.8.4)에 따르면, 아리스토테모스(헤라클레스의 고손자)의 아들인 프로클레스와 에우리스테네스가 라케다이몬을

차지하였다. 이후 두 가문에서 배출한 자들이 기원전 2세기에 이르기까지 스파르타의 왕이 되었다. 도리스족의 왕이 된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제우스를 숭배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헬레네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한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 같은 고대 그리스인들은 헤라클레스를, 그리스의 역사에서 절대로 제쳐버릴 수 없는 인물을 어떻게 헬레네스의 태두리 속으로 끌어들었을까? 그 방법은 헤라클레스를 제우스의 아들로 삼는 것이다.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는 암피트리온과 알크메네가 부부이지만 알크메네와 제우스 사이에서 헤라클레스가 태어났다고 기술함으로써 헤라클레스를 헬레네스의 주신 제우스의 아들로 삼고 있다.

내가 그 다음으로 본 것은 암피트리온의 아내 알크메네였고 그녀는 위대한 제우스의 품에서 몸을 쉬어, 대담무쌍하고 사자처럼 용감한 헤라클레스를 낳았소. (호메로스, 『오디세이아』 xi.266ff)<sup>12)</sup>

셋째는, 그녀(=에키드나)는 파멸을 피하는, 레르나의 히드라를 낳으니, 흰 팔의 여신 헤라가 헤라클레스의 힘에 물릴 줄 모르는 원한을 품고 그것을 길렀다. 하나 제우스의 아들로 암피트리온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헤라클레스가 아레스에게 사랑받는 이올라오스와 힘을 모아 군대를 이끄는 아테네 여신의 조언에 따라 그것을 무자비한 청동으로 죽였다. (헤시오도스, 『신통기』 313)<sup>13)</sup>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헤라클레스의 아버지를 암피트리온으로 보고 있지, 제우스일 가능성은 생각해보고 있지도 않지만 말이다. 암피트리온의 아들 알키데스는 헤라클레스로 개명하고, 도리스족의 수호신 제우스의 아들이 됨으로써 헤로도토스의 기록대로 “한 사람의 죽어야 할 영웅인 또 다른 헤라클레스”가 되었던 것이다.

12) 천병희 역, 『오디세이아』 (단국대학교출판부, 2000년 재판).

13) 천병희 역, 『신통기』 (한길사, 2004).

#### 4. 스파르타 왕위 계승의 자격

부커트는 스파르타 왕가의 시조 헤라클레스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헤라클레스는 도리스족 왕들의 공식적 조상이라는 그의 지위를 통해 가장 높은 사회적 명성을 누렸다. 이것은 아마도 도리스족의 펠로폰네소스 이주를 위한 허구적 정당화(a fictional legitimization)로서 사용되었을 것이다. 도리스족의 한 부족의 시조 영웅인 힐로스는 헤라클레스의 아들이 되었는데, 헤라클레스는 아르골리드의 원주민이었다.<sup>14)</sup>

부커트는 헤라클레스가 정말로 스파르타 왕가의 시조라고는 보고 있지 않다.

그러나 후트너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헤라클레스 신화의 핵심은 ‘옛 초기의 스파르타에서 기원했음에 틀림없다’고 보면서,<sup>15)</sup>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스파르타의 두 왕가인 아기스 왕가와 에우리폰 왕가는 헤라클레스로부터 기원했다… 이것 뒤에는 헤라클레스 신화가 있고, 그 신화는 그것의 핵심적 모습에서 옛 초기의 스파르타에서 기원했음이 틀림없다. 이 신화에 따르면, 스파르타의 두 왕가 명칭의 시조는 아리스토테모스의 손자들인 아기스와 에우리폰이다. 아리스토테모스의 형제로는 테메노스와 크레스폰테스가 있는데(이들 모두는 헤라클레스의 고손자들이다), 이들은 언젠가 펠로폰네소스를 장악하고자 출발하였다. 마침내 펠로폰네소스는 세 파당들에 의해 분할되었다. 그리하여 라코니아는 아리스토테모스의 것이 되었고 그 후에는 그의 두 아들(이들은 각각 아기스와 에우리폰의 아버지들이다)의 것이 되었고, 다른 두 형제들은 아르고스와 메세네를 장악하였다.<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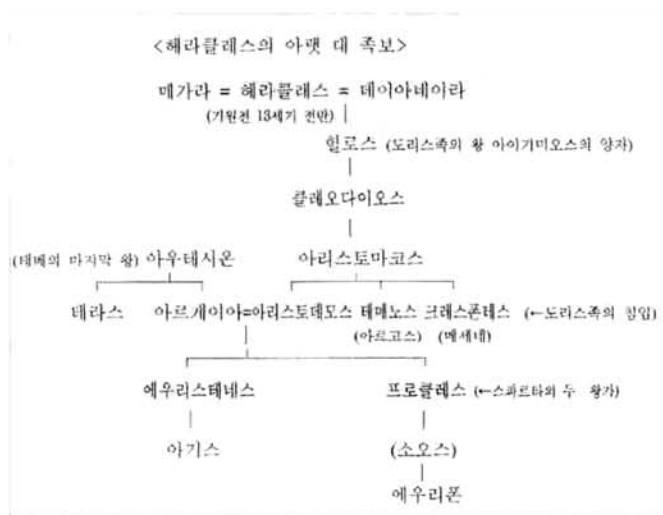
14) Walter Burkert, *Greek Religion*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5), p. 211.

15) Ulrich Huttner, *Die Politische Rolle der Heraklesgestalt im Griechischen Herrschertum* (Franz Steiner Verlag Stuttgart, 1997), p. 43.

16) Ulrich Huttner, *Die Politische Rolle der Heraklesgestalt im Griechischen Herrschertum*, p. 43.



부커트가 헤라클레스를 스파르타 왕가의 시조로 조작된 인물로 보고 있다면, 후트너는 역사적 인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기원전 2세기 스파르타가 망할 때까지, 스파르타는 두 명의 왕이 공동 통치하였는데, 두 명의 왕은 헤라클레스의 혈통을 이어받은 두 왕가에서 나왔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관습은 두 왕가인 프로클레스 가문과 에우리스테네스 가문으로부터 항상 두 명의 스파르타 왕을 갖는 것이었는데, 이들이 스파르타의 국조인 헤라클레스의 후손이었던 것이다. (코르넬리우스 네포스, 『아게실라오스』 i.2).

그러므로 스파르타에서 어떤 자의 왕위계승이나 지배권 행사를 두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가 헤라클레스의 후손인지의 여부가 관건이 되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고대 저자들의 기록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아폴로도로스, ii.8.2-5; 파우사니아스, iv.3.3-5; 헤로도토스, vi.52.

그의 후손이라는 것은 각별한 정치적 의미와 정통성을 부여해주는 것이었다.<sup>17)</sup>

기원전 446년 스파르타의 플레이스토아낙스 왕은 아테네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아티카로부터 철군했다는 죄목으로 추방된다. 복위를 위해, 그는 델피의 무녀를 설득하여 스파르타에서 온 대사들에게 “제우스의 아들인 그 반신(半身)의 자손을 외국 땅으로부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라”고<sup>18)</sup> 신탁을 내리게 하였고, 마침내 복위에 성공한다. 이에 대해 후트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신탁은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다. 이 성공을 위해 아마도 델피의 권위만이 아니라, 피티아 무녀가 단지 추방된 왕에 관해 말했기보다는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는 것에 관해 인상적으로 말했다는 사실도 한 몫을 하였을 것이다. 그 영웅의 후손은 고국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통치할 권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스파르타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하여 플레이스토아낙스를 복위시켰다.<sup>19)</sup>

그리고 후트너는 “헤라클레스는 스파르타 왕들의 공식적인 수호신이었던 것 같지는 않고, 왕들이 헤라클레스를 신으로 보고 숭배했다는 보고는 드물다”고<sup>20)</sup>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스파르타에서 헤라클레스가 신으로보다는 영웅으로 숭배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III. 아테네의 독재자 피시스트라토스와 헤라클레스

#### 1. 존 보드만의 주장

17) Ulrich Huttner, *Die Politische Rolle der Heraklesgestalt im Griechischen Herrschertum*, p. 64.

18) 투키디데스, v.16.2.

19) Ulrich Huttner, *Die Politische Rolle der Heraklesgestalt im Griechischen Herrschertum*, p. 49.

20) *Ibid.*, p. 64.

존 보드만은 기원전 6세기 아테네의 독재자 피시스트라토스 시대의 화병(花瓶) 도안에 각별히 헤라클레스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아테네에서 자주 등장할 뿐만 아니라 헤라클레스의 도상에 변화가 생겨나는데, 이는 피시스트라토스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헤라클레스를 수호신으로 삼은 데에서 연유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972년 *RA*(1972), 57-72에서<sup>21)</sup> 나는 피시스트라토스 시대의 아테네 예술에서 헤라클레스의 비상한 인기는 어느 정도 그 독재자와 그 영웅 사이의 의도적인 동일시에서 나온 것이며(둘 모두 아테나 여신의 각별한 피보호자로서 나타난다), 이 연계는 헤라클레스의 도상적 전승에서의 변화와 혁신—이 당시의 아테네의 그리고 아테네만의 예술 작품들에서 나타나고 있다—에 의해 반영되었다는 것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가장 명백한 연계는 피시스트라토스가 그의 두 번째 추방 후 가짜 아테나 여신이 안내하는 전차를 타고 아테네로 귀국하는 사건에서 표현되었다(헤로도토스, i.60).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도상의 변화에 반영되거나 도상이 다음과 같이 변화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헤라클레스가 도보로 아테나의 인도를 받아 올림포스에 입성한다는 일반적인 도상에서, 이제 그 영웅이 전차를 타고 여신과 함께 나타나는 도상으로서의 변화 말이다.<sup>22)</sup>

보드만은 특히 헤라클레스 도상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데, 전에는 아테나 여신과 함께 헤라클레스가 도보로 걷는 모습의 도안이 많았으나, 피시스트라토스 시대에 아테나 여신과, 전차에 오른 헤라클레스의 도안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1) John Boardman, "Herakles, Peisistratos and sons," *Revue Archéologique* (1972). 논자는 보드만의 이 논문을 입수할 수가 없어서, 이 논문에 관해 보드만이 자신의 다른 논문들에서 언급한 것을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하였다.

22) John Boardman, "Herakles, Peisistratos and Eleusis," *Th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Vol. 95 (1975), p. 1.



Munich 1416.

Attic Black Figure.

제작연도: 기원전 505

년경

높이 67cm의 암포라.

그림 설명: 헤라클레스와 이올라오스가 탄 전차를 아테나 여신이 이끌고 있다.

“존 보드만(1972, pp. 62-63)은 전차에 탄 헤라클레스의 도안에서 어떤 정적적 암시를 본다. 전차에는 헤라클레스의 곤봉을 쥔 조카 이올라오스의 모습도 보인다. 보드만은 고대의 사람들은 이 도안을 피시스트라토스의 곤봉무장 경호원들과 연계시켰을 것이라고 믿는다.” (Perseus Project, Vase Catalogue)

왜 이런 변화가 생겨난 것일까? 그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헤로도토스의 글을 인용하자. 그 역사가에 따르면 아테네의 권력자 메가클레스는 피시스트라토스를 귀국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책략을 사용하였다.

피아니아 구역(테모스)에 피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키가 커서 4페키스에서 3다크티로스가 모자랐을 따름이고(약 172cm) 얼굴도 아름다웠다. 메가클레스 일당은 이 여인을 완전무장 시키고 전차에 태운 다음 어떤 자세를 취해야 가장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지 시범을 보여주고는 도성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들은 전령들이 앞서 달려가게 했는데, 도성에 도착한 전령들은 미리 지시받은 대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테네인들이여, 피시스트라토스를 환영하시오! 아테나 여신께서 인간들 중에 특히 그분을 사랑하시어 몸소 자신의 아크로폴리스로 도로 데려오고 계시오” 전령들이 사방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외치자, 아테나 여신이 피시스트라토스를 다시 데리고 온다는 소문이 방방곡곡에 퍼졌다. 그동안 시내에 사는 자들은 여인이 정말로 여신인 줄 알고 한갓 인간에 지나지 않는 여인을 경배하며 피시스트라토스를 환영했다. (헤로도토스, i.60.4-5)<sup>23)</sup>

피시스트라토스가 아테네에 복귀했을 때에 위와 같은 일이 있었으므로, 도보로 헤라클레스를 제우스에게 이끄는 아테나 여신이라는 그리스 신화의 장면을 전차에 태우고 이끄는 장면으로 피시스트라토스가 정치적 계산 하에 바꾸게 하였다는 이야기이다.<sup>24)</sup>

그런데 올리히 후트너는 보드만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논박한다.

기원전 6세기 아테네의 화병 도안에는, 헤라클레스의 올림포스 입성에 관한 도안이 있다. 그 영웅은 직접 아테네 여신에 의해 자신의 아버지인 제우스에게로 인도되거나, 또는 헤라클레스가 천상에 이르기 위해 전차를 사용하는데 그 곁에는 아테나 여신이 서있다. 사람들은 도안의 변화가 일어나서 전차 장면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첫 번째 도안의 가장 오래 예는 전차 도안의 가장 이른 것보다 약간 오래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도안(도상)의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없겠다. 그러나 존 보드만(Herakles, Peisistratos and sons, RA 1972)의 가설은 변화를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하고는, 전차 도안과 피시스트라토스의 두 번째 집권(‘피아’라는 여자의 전차행렬이 그의 재집권에서 한 역할을 담당한다) 사이에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려하였다.<sup>25)</sup>

후트너는 피시스트라토스 당시에 스파르타에서보다 아테네에서 헤라클레

23) 천병희 선생의 번역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헤로도토스 지음 / 천병희 옮김, 『역사』 (도서출판 숲, 2009).

24) 보드만의 이론은 Oxford Classical Dictionary(2003)의 ‘Pisistratus’ (by Rosalin Thomas) 항목에도 소개되어 있다.

25) Ulrich Huttner, Die Politische Rolle der Heraklesgestalt im Griechischen Herrschertum, p. 30.

스가 화병의 도안으로 훨씬 많이 사용되었다는 보드만의 주장을 인정한다.<sup>26)</sup> 그러나 그는 피시스트라토스가 헤라클레스를 자신의 수호신으로 삼았다는 문헌증거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보드만의 주장을 논박한다.<sup>27)</sup> 나에게서는 보드만의 주장보다는 후트너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피시스트라토스 당시 아테네에서 헤라클레스의 도안이 각별히 많이 그려진 사실은 설명되어야 한다.

## 2. 보드만의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런데 보드만은 3년 뒤인 1975년에 관련논문을 발표하였다. “Herakles, Peisistratos and Eleusis,” *Th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Vol. 95 (1975). 보드만은 피시스트라토스 치세에 엘레우시스의 작은 비의(秘儀, Lesser Mysteries)를 아테네가 주도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sup>28)</sup>

요컨대, 엘레우시스에서 아테네의 능동적인 개입은 피시스트라토스의 첫 티라노스 정(政)보다 앞설 수 있지만 그의 군사적 행동과 관련되지 않을 수는 없으며, 그것의 대부분은 그의 치세 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케릭스 가문의 확립은 그의 독재정보다 앞설 것 같지는 않으며, 이것에 우리는 작은 비의의 발단을, 큰 비의의 시행에 있어서의 아테네의 밀접한 연루를, 아테네 시에서 엘레우시니온의 건축을 분명히 연계시켜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엘레우시스를 위한 새로운 텔레스테리온의 건축에

26) *Ibid.*, p. 25: “그 시대의 현존하는 라코니아 화병 도안들 중에서 그리고 신화에 근거한 도안들 중에서, 헤라클레스 도안이 1/4이지만 아테네에서는 거의 1/2에 이르는 많은 양이다.”

27) *Ibid.*, p. 25.

28) 국내 엘레우시스 비의 연구로는, 이형의, 「고전기 아테네에서 엘레우시스 秘敎의 영향력에 대한 고찰: 알키비아데스의 사건을 중심으로」, 『서양고대사연구』 5 (1998); 최혜영, 「엘레우시스 미스테리아: 데메테르·이시스·이난나의 비교」, 『서양사론』 83(2004.12); 최자영, 「엘레우시스와 아테네: 고대 그리스 폴리스의 정치적·지역적 연계의 유연성」, 『서양고대사 연구』 22(2008).

서 절정을 이루는데, 이 건축물은 아테네에서 피시스트라토스의 마지막 해들로 거의 확실히 연대를 책정할 수 있거나 그의 아들들에 의해 완공되었을 수도 있다.<sup>29)</sup>

아폴로도로스는 엘레우시스의 작은 비의에 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열두 번째 고역으로 헤라클레스는 저승에서 케르베로스를 끌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다.<sup>30)</sup> 케르베로스는 개 대가리 셋에 용의 꼬리를 갖고 있었고 등에는 온갖 종류의 뱀 대가리들이 나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케르베로스를 향하여 출발하기에 앞서 비의에 입문하려고<sup>31)</sup> 엘레우시스로 에우몰포스를<sup>32)</sup> 찾아갔다.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비의에 입문하는 것이 불법인지라 그는 필리오스의 양자가 된 다음 입문하려고 했다.)<sup>33)</sup> 그러나 켄타우로스 죽을 죽인 죄를 정화받기 전에는 비의를 참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에우몰포스에게 죄를 정화 받고나서야 비의에 입문할 수 있었다. (아폴로도로스, ii.5.12)<sup>34)</sup>

헤라클레스가 엘레우시스에 찾아가기 전에는 데메테르가 중심이 되는 하나의 비의(즉, 큰 비의, Greater Mysteries)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디오도로스도 ‘작은 비의’의 창립에 헤라클레스가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데메테르는 헤라클레스를 위해 작은 비의(τὰ μικρά μυστήρια)를 시작하였는데, 여신은 그가 켄타우로스들을 살해하면서 범한 죄를 정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디

29) John Boardman, “Herakles, Peisistratos and Eleusis,” *Th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Vol. 95 (1975), p. 5.

30) 헤라클레스와 케르베로스에 관해서는 「일리아스」 8.367f. 및 「오디세이아」 xi.623ff. 참조

31) 천병희 선생의 각주: “엘레우시스의 비의는 입문자에게 사후의 행복을 보장해준다고 믿어졌는데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저승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비의에 입문하려 했던 것이다.”

32) 아폴로도로스, iii.15.4 참조

33) 그러나 역사시대에는 그리스인이면 누구나 엘레우시스의 비의에 입문할 수 있었다고 한다(헤로도토스 viii.65 참조)

34) 천병희 선생의 번역과 각주를 옮겨놓았다.

오도로스, iv.14.3)

보드만은 작은 비의에 헤라클레스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이 새로운 축제가 생겨났을 때에 헤라클레스가 아테네의 정치에서 지니고 있었던 예외적인 지위”를<sup>35)</sup> 생각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헤라클레스를 피시스트라토스와 연결시키고 있다.

‘아테나’ 여신에 의한 자신의 아크로폴리스 재입성을 축하하기 위하여 피시스트라토스가 ‘헤라클레스의 올림포스 입성’이라는 주제를 조작하였다면, 아테네 화병에 그려진 그림의 도상적 변화 속에서 그의 교묘함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겠다. 엘레우시스와 비의에서 헤라클레스의 역할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sup>36)</sup>

그런데 1989년 한 학술지의 두 쪽 분량의 짤막한 Notes에서 보드만은 작은 비의의 헤라클레스가 피시스트라토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그의 예전의 강력한 주장을 많이 누그러뜨리고 있다.

피시스트라토스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헤라클레스를 택했다는 것은 명백하지는 않다. 그러나 아테나 여신을 수호신으로 삼고 있는 도시의 행운과 각별히 그 지도자들을 나타내기 위해 헤라클레스를 택했다는 것은, 호메로스 이래로 예술과 문학에서 잘 입증되듯이 헤라클레스가 그 여신과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확실히 명백한 것이다. 비록 아테네에서 피시스트라토스 시대 이전까지는 각별히 강한 관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말이다.<sup>37)</sup>

그는 이어서 엘레우시스의 작은 비의와 헤라클레스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35) Boardman, “Herakles, Peisistratos and Eleusis,” p. 6.

36) *Ibid.*, p. 7; 그리고 Boardman, “Herakles, Peisistratos and the Unconvinced,” *Th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Vol. 109 (1989), pp. 158-159도 참조하십시오.

37) John Boardman, “Herakles, Peisistratos and the Unconvinced,” pp. 158-159.



바로 6세기에 우리는 새로운 작은 비의의 성립에 주요 인물로 그 영웅이 연루되면서 아테네에서 이 변형된 이야기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비의는 또한 그를 아테네의 시민으로서 귀화시키는 데에, 그 영웅을 아테네의 예술과 건축조각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데에, 아테네가 그 영웅을 신으로서 최초로 숭배했던 도시(the city that first worshipped him as a god)라는 전승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였다.<sup>38)</sup>

영웅 헤라클레스가 ‘최초로’ 피시스트라토스의 아테네에서 신으로 숭배되었다는 그의 주장에는<sup>39)</sup> 문제점이 있다. 그 독재자가 스파르타의 국조를 격상시켜 신으로서 숭배하였다는 그의 주장이 이상하지 않은가?

### 3. 전차 도안과 엘레우시스 비의

우선, 왜 피시스트라토스 시대의 아테네 화병 도안에 아테나와 헤라클레스가 그토록 빈번히 등장하는 것일까? 필자는 보드만의 논문 “Herakles, Peisistratos and Eleusis”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이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논문에 따르면, 엘레우시스의 작은 비의를 피시스트라토스 치세에 아테네가 주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필자에게 아테나 여신이 헤라클레스를 전차에 태우고 올림포스에 입문하는 도안은 쿠데타를 성공시킨 피시스트라토스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엘레우시스 작은 비의를 아테네가 주재하게 된 것과 더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은 비의를 아테네가 주재하게 된 위업을 작은 비의의 창립에 연루된 영웅 헤라클레스를 아테네의 수호신 아테나가 이끄는 도안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38) *Ibid.*

39) 피시스트라토스가 헤라클레스를 자신의 수호신으로 삼았다는 보드만의 주장은 OCD(2003)의 항목 ‘Heracles’(by Herbert Jennings Rose and John Scheid)에도 소개되어 있다.

작은 비의의 창립에 연루된 헤라클레스는 암피트리온의 아들, 영웅 헤라클레스이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작은 비의와 관련하여 그 영웅과 함께 언급되는 자들이 인간들이고 그 영웅과 동시대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아폴로도로스(ii.5.12)의 기록—“헤라클레스는 케르베로스를 향하여 출발하기에 앞서 비의에 입문하려고 엘레우시스로 에우몰포스를 찾아갔다”—에 따르면, 헤라클레스가 엘레우시스에 갔을 때 비의의 사제는 에우몰포스였다. 그런데 디오도로스는 그 때의 사제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이 고역을 완성하는 것이 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헤라클레스)는 아테네로 갔고 엘레우시스 비의에 참가하였는데, 그 때는 오르페우스의 아들 무사이오스가 입문식을 주재하고 있었다. (디오도로스, iv.25)

헤라클레스가 엘레우시스에 찾아갔을 때 누가 사제였을까. 에우몰포스였을까, 아니면 무사이오스였을까? 디오도로스는 엘레우시스 비의의 기원지를 말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왕위를 얻은 후, 에렉테우스는 엘레우시스에서 데메테르의 입문식을 설립하고 비의를 확립하였는데, 이집트로부터 들여온 제식이었다. 그 여신이 아티카에 바로 이때에 왔다는 전승은 온당한데, 왜냐하면 이때에 여신의 이름을 딴 과일이 아테네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씨앗이, 마치 데메테르가 선물로 하사한 것인 양, 다시 발견되어졌던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아테네인들도 바로 에렉테우스의 치세에 비가 모자라 양식이 없었을 때 데메테르가 아테네에 곡물을 들여왔다는 데에 동의한다. 더욱이 데메테르 여신의 입문식과 비의가 그 때 엘레우시스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엘레우시스의 희생의식과 고대의식이 동일한 방법으로 아테네인들에 의해 준수되었는데, 그것은 또한 이집트인들이 행한 방법과 동일하였다. 왜냐하면 에우몰포스 가문은 이집트 사제 출신이기 때문이었다… (디오도로스, i.29.2-4)

이집트 사람이자 아테네의 왕이 된 에렉테우스가 엘레우시스 비의(큰 비의)를 이집트로부터 들여왔고, 그 비의를 주관한 가문은 이집트 사제 출신인 에우몰포스의 가문이었다.<sup>40)</sup> 에우몰포스와 동시대인인 에렉테우스는 언제 사람일까? 파로스 연대기의 제12번째 사건부터 제15번째 사건까지는 에렉테우스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그는 기원전 1400년경 사람이다. 헤라클레스가 13세기 전반에 주로 활동한 사람이라면, 그가 에우몰포스와 동시대일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디오도로스에 따르면 에우몰포스는 큰 비의의 창립과 연관된 사제이다.

그러면 오르페우스의 아들 무사이오스와 헤라클레스가 동시대인물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자. 디오도로스의 글에게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또한 시와 노래로 칭송받았던 리노스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세 명의 제자가 가장 유명하였다. 헤라클레스, 타미라스(Thamyras), 오르페우스 이들 중에서 헤라클레스는 수금을 배우고 있었는데, 둔감한지라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없었고, 언젠가 리노스가 막대기로 때리자 그는 격분하여 수금으로 스승을 때려 죽였다. (디오도로스, iii.67.2)

이 글에 따르면 헤라클레스와 오르페우스가 동시대 사람이니, 오르페우스의 아들 무사이오스와 헤라클레스가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지만 동시대 사람이 될 수 있겠다.

텔피의 사제 플루타르코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엘레우시스에 가서 정화의식을 치루라고 조언한 자는 테세우스라고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40) 기원전 5세기 역사적인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The Great Eleusinian Relief(엘레우시스 큰 비의 기념 부조)'에는 데메테르와 Kore(페르세포네) 사이에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의 정체에 관해 학자들은 트리프톨레모스, 플루토스, 데모폰이라고 각기 주장하여왔지만, 에벌린 해리슨은 그 소년은 에우몰포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Evelyn B. Harrison, "Eumolpos Arrives in Eleusis," *Hesperia* vol. 69, no. 3 (Jul.-Sep., 2000), pp. 267-291.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영웅 사이에 대화가 잦았고, 바로 테세우스의 제안으로 헤라클레스가 예전에 저지른 몇몇 성급한 행동들로 인해 먼저 엘레우시스에서 정화받은 후 입문하였다고 기술한 역사가들이 더 믿을 만하다. (플루타르코스, 『테세우스전(傳)』 30.5)

테세우스의 조언으로 헤라클레스가 엘레우시스에 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테세우스는 언제 사람일까? 파로스 연대기의 20-22번째 사건들의 기록에 따르면 테세우스는 기원전 1250년대에 활약하였다. 그렇다면 헤라클레스와 테세우스도 동시대 사람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헤라클레스가 테세우스보다 한 세대쯤 연상일 것이다). 정리하자면, 기원전 13세기 중반쯤 영웅 헤라클레스는 테세우스의 조언을 받아들여 엘레우시스로 가서 사제 무사 이오스에게 정화의식을 받았다.

엘레우시스의 작은 비의의 창립에는 영웅 헤라클레스가 연루되어 있다. 그렇다면 헤라클레스를 전차에 태우고 이끄는 아테나 여신의 모습이 담긴 도안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피시스트라토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그려졌다고 보거나, 기원전 6세기 피시스트라토스 치세에 엘레우시스의 작은 비의를 아테네가 주관되었음을 엘레우시스의 작은 비의의 창립에 연루된 헤라클레스를 아테네의 수호신 아테나 여신이 인도하는 도안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 IV. 마케도니아 왕조의 헤라클레스 숭배

기원전 4세기 후반 그리스는 폴리스들 간의 반목에서 헤어 나오지를 못한다. 아테네 사람 데모스테네스 같은 자들은 그리스인들 간의 항쟁을 중단하고 그리스를 노리고 있는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359-336 BC)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인물들은 그리스인들 스스로가 싸움을 중단하고 변명을 일굴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를 중심으로 모든 그리스인들이 뭉쳐 페르시아 원정을 감행한

다면 그리스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테네의 이소크라테스가 그러하였다.<sup>41)</sup> 그는 필리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당신이 페르시아 대왕의 힘에 대해 가장 빠르게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해 더 길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이 이러하므로, 병사의 삶에 참여하지 않았던 내가 이제 당신에게 충언한다면 비난받을까 걱정되는군요. 당신의 전적(戰績)은 그 수에 있어서나 크기에 있어서 유례가 없으니 이것에 관해 내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야기의 나머지를 개진하기 위해 나는 당신 자신의 아버지, 당신 왕국의 건국자(페르디카스 1세), 당신 종족의 시조(τὸν τοῦ γένους ἀρχηγόν, 즉 헤라클레스) 모두- 헤라클레스<sup>42)</sup> 그리고 아마도 그밖의 자들이 당신의 조언자로서 나타나는 것이 옳습니다-가 내가 주장했던 바로 그러한 것들을 충언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소크라테스 「필리포스」 v.105)

이소크라테스는 헤라클레스를 마케도니아 왕가의 시조라고 부르고 있다. 그가 단순히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밀접함을 나타내기 위해 그리스의 영웅 헤라클레스를 마케도니아 왕가의 시조로 조작한 것일까?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는 마케도니아 왕들의 아르고스적 기원을 명백히 말해주는 가장 이른 전거이다. 기원전 5세기의 두 역사가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사이의 연계를 강조할 이유가 없던 사람들이다. 투키디데스는 다음과 기술하고 있다.

바다에 면한, 오늘날 마케도니아라고 부르는 지역은 페르디카스의 아버지인 알렉산드로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원래 아르고스로부터 온 테메노스 가문(Τημενίδαι

41) 이소크라테스의 정치사상에 관해서는, 김봉철, 「전 4세기 폴리스의 위기 현상과 이소크라테스」, 『서양사론』 38(1992); 김봉철, 「전환기 그리스의 지식인, 이소크라테스」(신서원, 2004)를 참조하시오.

42) 헤라클레스는 트로이를 공략한 적이 있다(아폴로도로스, ii.6.4; 파우사니아스, viii.36.6).

τὸ ἀρχαῖον ὄντες ἐξ Ἀργούς) 출신인 그의 선조가 장악하였고 왕국으로 자라났다. (투키디데스, ii.99.3).

마케도니아 테메노스 왕가의 시조인 테메노스는 헤라클레스의 4대손으로 기원전 1120년경 도리스족의 침입 시 아르고스를 차지했었다(상기의 족보를 보시오).

마케도니아에서 테메노스 왕가의 권력 장악에 관해, 헤로도토스는 viii.137-139에 걸쳐 투키디데스보다 더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아민타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알렉산드로스 1세, 498-454 경 BC)로부터 헤아려 7대째의 조상에 해당하는 페르디카스페르디카스 1세, 700-678 경 BC)는 다음과 같이 해서 마케도니아 왕위를 손에 넣은 인물이다. 그 옛날 아르고스로부터 온 테메노스의 후손(ὄντες ἐξ Ἀργούς, ἐξ Ἀρχεος ἔφυγον ἐς Ἰλλυριοῦς τῶν Τιμένου ἀπογόνων)인 세 명의 형제, 즉 가우아네스, 아에로포스, 페르디카스페르디카스 1세가 아니다가 일리리아인의 나라로 도망쳐 왔다. (헤로도토스, viii.137.1)

헤로도토스는 마케도니아 왕들이 그리스인이라는 에피소드를 두 개 더 소개한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1세가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고자 하였을 때, 처음에는 그 경기가 헬레네스에게만 허용되고 바르바로이에게는 개방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그의 참가가 거부되자, 알렉산드로스는 “그가 아르고스 사람임을 증명함으로써”(v.22.2) 목적을 이루었다는 기록도 남기고 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1세는 그의 아버지 아민타스 1세에 관해 “그리스 사람 마케도니아 총독(ἀνὴρ Ἑλλήν Μακεδόνων ὑπαρχος)”(v.20.4)이라고 말하고 있다. 헤로도토스의 이러한 기술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보이는 유물도 발견되었다고 혼블로우어는 보고하고 있다.

베르기나의 마케도니아 왕가 묘역에서 최근에 발굴된 유물은 아르고스-마케도니아의 연계를 더욱 보여주었다. 그것은 헤라 여신을 위해 개최된 아르고스 경기에서 얻은 청동 정(鼎)으로, 거기에는 ‘나는 아르고스 헤라로부터 얻은 상(賞)’이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sup>43)</sup>

그리고 필리포스 2세 이전 마케도니아에서 주조된 주화들에는 마케도니아 왕과 더불어 헤라클레스가 새겨져 있다. 아르켈라오스 왕(413-399 BC)과 아민타스 3세(389-369 BC) 때에 주조된 은화를 보시오.



마케도니아 왕 아르켈라오스(413 - 399 BC) 치세에 아이가이에서 주조된 은화. 왼쪽에는 사자가죽을 쓴 헤라클레스의 턱수염 난 두상이 새겨져 있다. 오른쪽에는 먹이를 먹고 있는 늑대의 앞부분이 새겨져 있다. 페르디카스의 아들 아르켈라오스는 기원전 400년경 수도를 아이가이에서 펠라로 옮긴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투키디데스(ii.100.2)에 따르면, “그에 앞서 있었던 8명의 왕들이 성취했던 것 이상으로 기병대와 군대와 그밖의 장비를 마련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나라를 전시체제로 조직하였다”.



Dewing 1098. 아민타스 3세(389-369 BC) 당대에 아이가이에서 주조된 은화. 앞면에는 사자가죽을 쓴 헤라클레스의 두상이, 뒷면에는 AMYNTA라는 명문(銘文)이 있다.

43) Simon Hornblower, *A Commentary on Thucydides* (Clarendon Press Oxford, 1991). 혼블로우어의 투키디데스 ii.99.3에 대한 주석.

그런데 알렉산드로스는 선대왕들과는 달리, 헤라클레스를 통해 그리스와의 관계를 밀접히 하였고, 전투에서는 자신의 수호신으로, 그리고 인도 접경에 이르는 페르시아 원정에서는 자신을 이끄는 인도자-그리스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인도에까지 이르는 원정을 한 자는 디오니소스인데, 알렉산드로스 당대에는 헤라클레스도 인도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삼았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가 선대의 왕들과는 달리 그리스를 생각하며 헤라클레스에게 정치적 중요성과 자신의 수호신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는 하였어도, 그 부풀림에는 “헤라클레스 후손으로서 왕위계승자라는 것이 그 출발점”<sup>44)</sup>이었다. 알렉산드로스 및 필리포스 이전의 마케도니아 왕들은 자신들이 헤라클레스의 후예라고 여기고 있었다고 헤로도토스가 이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두 왕 이전의 마케도니아 왕들이 주조한 은화에 헤라클레스가 새겨진 것으로 보아서, 필리포스와 알렉산드로스가 남쪽 그리스를 의식하며 헤라클레스를 자신들의 선조로 조작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sup>45)</sup>

44) Ulrich Huttner, *Die Politische Rolle der Heraklesgestalt im Griechischen Herrschertum*, p. 122.

45) 벨레이우스와 플루타르코스가 알렉산드로스가 헤라클레스의 후손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즈음 왕가의 혈통으로 헤라클레스의 11대 손인 카라노스(Caranus)가 아르고스로부터 와서는 마케도니아의 왕권을 장악하였다. 이 자로부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17대 손이었고, 모계로는 아킬레스의 후손이고 부계로는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다. (벨레이우스, i.6.5)

알렉산드로스의 혈통을 살펴보면, 그의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 쪽으로 카라노스를 거쳐 헤라클레스에 이르며, 어머니 쪽으로는 네오프톨레모스를 거쳐 아이아코스에 이른다. 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플루타르코스, 「알렉산드로스」 ii.1)



## V. 맺음말

우선 헤라클레스 영웅숭배에 접근하려면, 영웅(인간)으로서의 헤라클레스 숭배와 신으로서의 헤라클레스 숭배를 구분하여야 한다.

스파르타에서의 헤라클레스 숭배는 스파르타의 국조로서 또는 스파르타 왕가의 시조로서의 숭배를 말하는데, 암피트리온의 아들인 인간 헤라클레스에 대한 숭배를 말한다. 그는 기원전 13세기 전반에 활약했던 인물로 보인다.

아테네의 독재자 피시스트라토스 시기에 제작된 화병들에는 아테나, 헤라클레스, 전차가 함께 그려진 도안이 많다. 이에 대해 보드만은 키 큰 여자를 아테나 여신으로 분장시켜 전차에 태운 후 권력을 잡은 피시스트라토스가 자신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화병의 도안으로 아테나 여신 그리고 전차를 탄 영웅 헤라클레스-보드만은 피시스트라토스가 영웅 헤라클레스를 자신과 동일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를 함께 그린 도안을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시스트라토스가 스파르타의 국조 헤라클레스를 자신과 동일시하였다는 주장은 자연스럽지가 않다. 보드만의 주장대로 피시스트라토스 치세에 엘레우시스의 작은 비의를 아테네가 주관하게 되었다면, 작의 비의의 창립에 관련있는 헤라클레스를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 여신이 이끄는 것을 묘사한 도안을 통해 아테네가 피시스트라토스 치세에 엘레우시스의 작은 비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마케도니아의 헤라클레스 숭배는 마케도니아의 왕가의 시조로서 암피트리온의 아들 헤라클레스를 숭배한 것이지, 남쪽 그리스와의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니다. 비록 알렉산더가 헤라클레스를 통해 남쪽 그리스와의 관계를 부각시켰다 하더라도, 그 핵심에는 알렉산더가 영웅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자리잡고 있다.

헬레니즘 시대 때에는 영웅 헤라클레스 숭배가 범헬레니즘적 성격을 지

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 지중해 세계가 영웅 헤라클레스를 왕가의 시조로 모시고 있는 마케도니아인들에 의해 지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전기 때 암피트리온의 아들, 영웅 헤라클레스 숭배를 범그리스적인 현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스파르타와 마케도니아에서 왕가의 시조로서 헤라클레스 영웅숭배는 역사적 근거를 지니고 있고, 그 근거로부터 왕가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 투고일자 : 2009. 5. 15

□ 게재확정일자 : 2009. 6. 20

〈Abstract〉

## The Hero Cult of Heracles and its historical Roots in ancient Greece

Oh, Hung-Shik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olitical role of the hero cults of Heracles in Sparta, Pisistratus' Athens, and Macedonia, and to find out its historical roots.

If we try to approach the hero cult of Heracles, first of all we should distinguish it from the cult of Heracles as a god, according to Herodotus(ii.44.5): "And furthermore, those Greeks, I think, are most in the right, who have established and practise two worships of Heracles, sacrificing to one Heracles as to an immortal, and calling him the Olympian, but to the other bringing offerings as to a dead hero." The hero cult of Heracles was to worship the man who was born of human parents, Amphitryon and Alcmene.

The hero cult of Heracles in Sparta and Macedonia was not fabricated for political purposes, but Heracles was taken for truth as the real originator of two dynasties.

How about in Pisistratus' Athens? At that time, there were many vase paintings which depicted both Athena and Heracles. Boardman tried to

explain such a phenomenon: “it is in the sixth-century that we can see this anomaly being put right in Athens with the involvement of the hero in the *aition* for the new Lesser Mysteries, which also succeeded... in the tradition which has Athens the city that first worshipped him as a god.” It, however, is unreasonable that the tyrant worshipped Heracles the hero, the originator of Spartan royal families, as a god.

According to ancient Greek writers, Heracles the hero was involved in the institution of the Lesser Mysteries in Eleusis. If Athens had been in charge of the Lesser Mysteries in the tyranny of Pistratus and his sons,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say that the vase paintings depicting both Athena and Heracles were related to the Mysteries rather than to the political ideology for Pistratus' coup d'état.

The hero cult of Heracles in the Hellenistic Age must have been Pan-Hellenistic, because the eastern Mediterranean world was dominated by the Macedonians who worshipped Heracles the hero as the progenitor of the Macedonian dynasty. But the hero cult of Heracles in the Classical time should not be regarded as Pan-Hellenic.

#### 주제어(Key Words)

1. 헤라클레스(Heracles)
2. 영웅숭배(Hero Cult)
3. 피시스트라토스(Pisistratus)
4. 엘레우시스의 작은 비의(the Lesser Mysteries in Eleusis)
5. 존 보드만(John Boardman)
6. 마케도니아(Macedonia)